

한형조 무문관 탐방

34 육조의 의발 ③

7세기말 즉위후후 연간에 신수(神秀 606~706)를 비롯한 동산(東山)의 문도들은 무후시대의 신비주의를 타고 장안과 낙양으로 물러들었다. 포교의 중심지는 달마가 주석하고 있던 송산의 소림사였다. 북위 시대 황실의 이교가 있었던 이곳에 신수를 중심으로 하는 북종의 선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실차난타가 무후의 지원으로 <회일경> <능가경> <기신론> 등의 새로운 번역에 활동하고 있었고, 법장이 또한 무후의 요청으로 궁중에서 화엄의 이치를 전파하고 있었다. 무후를 이어 현종(玄宗)의 치세기로 들어서면서 북종의 선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힘을 쏟게 된다. 양 무제 이후의 불교를 정리한 도선의 <속고승전>은 선의 독자적 발전에 적절한 위상을 부여해주지 못했다. (도선의 저작이 7세기 중엽의 작품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 시기는 달마를 의식한 초기 선의 태동기였고, 그래서 그의 새로운 움직임이 갖는 심원한 의미를 간과하지 못했다.) <전법보기>를 비롯해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등 수많은 선종사서들이 이 무렵에 지어졌다. 그 중심기조는 북종선의 발전과 사승(師承)이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동산의 법문이 신수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궁중과



회란 요즘 식으로 공개 토론회같은 것이다.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운집한 그 자리에서 신회는 북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의 정통은 남방의 혜능에게 있다. 북종은 선의 방계일 뿐이다. 그런데도 보적은 송산에 7조의 법당을 건립하고 <전법보기>를 지어 신수를 정통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회는 동황문서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菩提達摩南宗正時非論)>에서 달마에 연인하는 선의 전통이 혜능의 남종의 남종으로 이어지는 사정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1) 달마가 여래선의 시조인데, 2) 중국에 들어와 양의 무제를 만나, 그의 비분필적인 불교이해를 비판했다. 3) 실망한 달마는 송산 소림사로 들어가 면벽수도했다. 혜가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는데 이때 인가의 증표로 가사를 함께 주었다. 4) 그렇게 전해진 가사가 지금도 혜능의 처소인 조계(曹溪)에 현존한다. 그러므로 혜능이야말로 정통의 6조이다. 신회의 주장은 즉각 반발에 부딪혔다. "도대체 법은 가사에 있는가. 가사를 전하는 것이 법을 전하는 것과 같단 말인가." 신회는 이렇게 응수했다. "법은 물론 가사에 있지 않다. 그러나 수행자들에게 근본정도의 소재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 가사를 전법(傳法)의 증표로 삼

"법이 가사에 있는가"

신수의 '점교' 북종선 역사무대에서 사라져

귀족들 사이에 광범위한 인지와 세력을 얻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엄정지(嚴挺之)가 쓴 대지선사비명(大智度論疏)은 이렇게 적고 있다. "대지선사(신수의 제자인 의복)의 주장은 분다 달마에서 비롯되며, 불타의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 동국으로 흘러와서 300년을 지나는 동안 오직 동산학문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혜가 송한 도선 흥인으로부터 대통선사(大通禪師: 신수)에 이르러까지 계속된 것이며 대통선사의 전법 상속자는 하동의 보적과 우리 대지선사 두 분뿐인데, 동산의 덕을 이어받기 바로 7대째가 된다."(<초기선종사> 37쪽, 아나기다 저, 양기봉 역, 김영사)

그런데 이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하택의 신회(670~762)라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왕유(王維)가 쓴 혜능의 비명과 종밀(宗密)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에 의하면 신회는 본래 신수의 제자였다. 3년간 사사한 신수가 무후의 조정에 초빙된 것을 계기로 그를 떠나 조계의 혜능을 찾아갔다 한다. 그와 혜능이 나눈 문답 한문이 남아있을 뿐 이 사람의 행적은 그동안 어둠에 묻혀 있었다. 그러다가 동황문서의 발굴과 함께 선종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개원 20년(732) 낙양 근처 황대(滄臺)의 개운사(開雲寺)에서 무차대회가 열렸다. 무차대

회였다." 신회의 주장은 궁색해 보인다. 우리가 알기에 선의 정선은 언어문자 너머에서 이심전심으로 전해진 불가득(不可得) 불가전(不可轉)의 진실이 아니던가. 신회도 문예의 핵심이 가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남종과 북종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선의 근본정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역설해 마치 않았다. 그 차이를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우선 북종이 점진적 수련을 말하는 점교를, 남종이 근원적 직각을 말하는 돈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미리 짚어둔다.

이후 북종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선의 역사는 주지하다시피 남종이 주도해 나갔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신회의 노력때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본원인은 북종 자체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고갈된 데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종에 맞서 남종의 정통을 역설하던 신회 자신 또한 선의 역사에서 잊혀지고 말았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선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것은 신수도 신회도 아니었다. 선의 정통은 혜능의 진수를 얻은 뛰어난 제자들의 활발한 개성과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전송(心心傳心)을 통해,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이어졌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바른 법을 닦는 보살이 마음에서 터득해야 할 열가지 안주심 즉, 십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섯번째는 여염인(如忍)이다. 아지랑이는 잡을 래야 잡을 수도 없고 얼물래야 얼을 수 없다. 이는 우리 증생계의 몸과 마음의 형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육신이 견고한 것 같지만 잡아 뜯 수가 없고 지속되게 할 수 없으며 마음 역시 항상하지 못해 일어 나면 곧 스러지기를 연속한다. 마치 아지랑이가 계속 피어 오르면서도 머물러 있지 못하듯, 보살은 바로 세상법이 이와같은 것임을 알아 탐착을 여의고 안락한 경계에서 방편으로 생활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십인(十忍) ①

여섯번째는 여공인(如瞋忍)이다. 여공은 꿈과 같다 뜻이다. 보살은 삶과 죽음을 포함한 증생살이 모두를 꿈과 같이 여긴다. 세상을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닌 망상 번뇌가 일으키는 꿈으로 본다. 여기에 실재는 없다. 몽매하게 전도된 증생에게 있어서 세상살이 실제할지는 몰라도 보살에게 세상은 한낱 무명심의 그림자로 보인다. 그러면 세상에 고귀한 것도 없으니 무슨 살맛이 나느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보살에게는 고귀한 삶도 저속한 죽어도 본래 없으므로 살고 싶단나니 살기 싫단나니 하는 것이 없다. 다만 꿈인 줄 알므로 자유롭기 그지 없다

불교와 수학 ③7

인연 김홍운

통계학의 원리에는 정규 분포곡선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집단에 대해 가능성이나 학습도에 관해 조사할 때 매우 우수한 자와 열악한 자의 수치는 비슷하게 적은 분포를 보이고, 중간 수준의 수치가 많이 나타나는 데,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 종모양의 곡선을 이루는 정규분포곡선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교사 시절 학생의 진학지도도 하면서 기묘한 사실을 실감했었다. 당시에는 학교의 평균화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각 도마다 이른바 '명문'으로 불리는 고등학교들이 있었으며 명문 대학은 거의 이들 명문 고교 출신이, 그리고 명문 중학교에는 그 근방에 있는 명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이었다. 위의 통계학의 원리대로라면 '명문'에 입학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인구 비율과 같아야 하는데 실상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특정 지역 출신들만만 이루지는 것이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가까운 곳에 이사했다는 고사는 결코 헛말이 아님을 실증하고 있는 보기이다. 아마도 그 지역의 지적 분위기가 그런 현상을

法數로 배우는 불교

<44>



인복작 '사색'

"세상은 꿈·아지랑이·그림자와 같다" 허공처럼 걸림없는 '정정심' 체득

수행하는 보살에게 진실된 법의 마음이 열리면 몸과 마음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다섯가지 요인 즉, 오온이 마치 그림자처럼 여겨지는 체질이 온다. 분명히 먹고 마시고 말하고 움직이는 자기라는 육신이 있고(色) 참고 담고 가렵고 아픈 느낌이 있고(受) 해어리고 공리하는 생각이 있고(想) 하고싶은 하기싫은 의지가

있으며(行) 잠재되어진 모든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識) 비추어보면 영화 속의 그림자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법이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자가 오온에 걸림이 없는 이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이치를 누가 알겠는가 말이다. 아홉번째는 여화인(如化忍)이다. 여화인은 일체가 조각된 법이라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즉, 온갖 것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것이어서 생멸과 변화가 막측하다. 보살은 이러한 조각된 법에 속지 않고 진실한 실상속에 안주하여 기쁨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열번째는 여공인(如空忍)이다. 보살이 얻은 경지는 허공처럼 청정하고 가없고 꾸밈없고 걸림 없다. 그것은 마음에서 열리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일체가 경등하다. 모든 것이 공한 실상 공한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을 체득하는 것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와 완성이다. 허공마음속에 허공 법계가 들어있고 일체 여래가 들어있고 일체세계 일체연인이 들어 있다는 점은 우리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신통이나 부리고 술법이나 쓰는 의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마로 발심하고 정경에 의해서 닦아나가는 보살에게나 얻을 수 있는 보배인 것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④2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도 환경에 따라 대학자가 될 수 있고, 늑대 소굴에서 자라면 늑대처럼 키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의 밀림 지대에서는 어리서 늑대와 함께 자란 늑대 소년과 발견된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공간적으로 어디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능력이나 인간성이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연(緣)이라 이름지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



그림·취주현

죽 공(空)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나쁜 물음이 생긴다.

20세기 최대의 수학 업적의 하나가 게델의 불완전성정리이다. 19세기 말 이후의 수학은 수학적 진리가 무엇이냐를 추구해 왔다. 근세 이후 급격하게 발전한 수학은 서서히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수학에 절대 모순이 없는 진리가 있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관기초론이 형성되었다. 절대 진리의 존재를 믿고 연구해 온 수많은 수학자에게 그 존재 여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직결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물음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내린 사람이 K.게델이며 오랜 수학의 진리성 논쟁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아무리 수학이 발달해도 그것으로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의 체계에도 진(眞), 부(否)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즉 '진'도 '부'도 아닌 것이 수학의 본질이다. 수학자가 긴 역사에서 끊임없이 추구한 결과는 수학이 절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된 것이다. '진'도 '부'도 아닌 것이라면 '공(空)'의 세계이다. 수학이 일체가 갈파한 경지에 도달한 것은 겨우 아제의 일이다. 수학자는 게델의 결론에 질색했다. 그러나 여기서 수학은 다시 용기를 내어 '진리는 가설(H.포앙카레)'이라는 것발 아래 훌륭한 '가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모든 사물·현상 '인연소생'... 본성은 '空' 수학의 가설이론 절대진리 찾기에 나서

나자마자 무거운 인연의 울가미에 쌓여 자라고 있다. 문화적 유산, 정신적 인자까지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오늘의 작은 일 때문에 내일의 자기의 처지가 정해지지는 수도 있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일, 학습의 결과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고 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인(因)이다. 현실세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시간적인 인(因)과 공간적인 연(緣)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이 사실을 '모든 사물이 나 현상이 인연소생'이라 일컬어져 왔다.

'일단 인을 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울가미가 되어 진실과 그 말씀 사이에는 천지의 차이만큼의 간격이

벌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아라'라는 입제선사의 말씀이 있다. 또 석가모니께서 '법은 문자를 떠난다. 인(因)에 속하지 않으며 연(緣)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갈등이 야기된다. 인연의 얽힘 속에 절대적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인과 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현실의 세계이며 그 양상의 본질은 공(空)일 수밖에 없다. 그 공(空)을 몸으로 터득할 때가 대오(大悟)의 경지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현상이 인연소생'이라 일컬어져 왔다.

'일단 인을 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울가미가 되어 진실과 그 말씀 사이에는 천지의 차이만큼의 간격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 팩스: (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선물을 대신 보내 드립니다.
(97.12.1~98.1.31)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싶은 불서와 보내 드리고 싶은 분의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 (02)737-0695

등기 우편료(평균 3000원) 중 절반은 여시아문에서 부담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1500원의 우편료만 더 내시면 됩니다.



사은 판매 도서

- 한산시 김달진 역주 / 세계사 / 10000 → 6000원
- 동양의 지혜와 선
- 심재홍 / 세계사 / 12000 → 6000원
-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 황유복 외 / 까치 / 15000 → 8000원
- 불교학개론 강의실
- 1, 2 장희욱 / 불교시대사 / 4500 → 2700원
- 음악경, 선생경 외
- 경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 경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 부모은중경 외
- 경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 행복한 마음 김정섭 / 김영사 / 5900 → 4000원
- 배꼽 밑의 주인공을 찾아라
- 박희선 / 심령과학출판사 / 7000 → 4000원
- 선문선담 조오연 / 장승 / 5000 → 3000원
- 초서자전 권필부 / 까치 / 30000 → 15000원

선물용 도서

-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 우리출판사 / 12000원
-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하
- 일지 / 대한정사 / 각 8000원
- 기도 일타 / 효림 / 5000원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 일타 / 효림 / 3500원
-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 현대불교신문사 / 여시아문 / 7000원
- 금강경 대강좌 이계원 / 여시아문 / 8000원
- 삶은 고가 아니다 해원 / 여시아문 / 7000원
-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 효림 / 7000원
-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 정승석 / 대한정사 / 8500원
- 삼국유사 1, 2 일연 / 숲 / 각 8500원
- 법구경 김달진 / 원광사 / 8000원
- 도솔전에서 만납니다 장순용 / 세계사 / 6000원
- 깨달음의 길 거해 / 담마칸다 / 6000원
-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연구소 / 산하 / 5000원

붓다 - 꺼지지 않는 등불

- 장부아출판사 / 시공사 / 6000원
- 돼지 저금통 속의 부처님 권대용 / 국민서관 / 5000원
-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르-호지 / 녹색평론사 / 5000원
- 내 아들 딸아 세상은 너의 것이다
- 유곡 이이 권, 안장환 역음 / 문산 / 5500원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한국역사연구회 저음 / 청년사 / 6500원
- 돌부처 이근후 / 여시아문 / 6500원
- 작은 것이 아름답다
- EF.슈마허 저음, 김진옥 옮김 / 범우사 / 6000원
-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 올리버 포코노 - 크리스 포코노 저음 / 정신세계사 / 6000원
- 문화의 수수께끼
- 마빈 해리스 저음, 이종인 옮김 / 시공사 / 7000원
- 진흙 속에 피는 연꽃 이승기 저음 / 불광 / 3500원
- *달력: 산악 8000원 / 한국의 사계 7000원
- *명상 노트:
- 와복 일어나시다 5000원
- 날마다 크는 그리움 5000원

성철 스님 범어집

- 백일 법문 상·하 상 6500원 하 5500원
- 선문정로 평석 6000원
-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 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 영원한 자유 6000원
-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 돈황본 육조대경 6000원
- 선문정로 4000원
- 본지공광 7000원
-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성철 스님 범어집 1집(11권 W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비디오(CT스님, 성철 큰스님, W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